

“가을에는 내가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니다, 그가 미치도록 그리울 때가 있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 문득 그리움으로 다가온 가을 천등산 봉정사. 중앙고속도로가 돌리면서 봉정사 가는 길이 한결을 더 가까워졌다.

송이 산출 많은 솔숲 울울창창



시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애기행

(6) 천등산 봉정사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수가 많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작고 회소하다고 생명이 아니겠는가. 지조암(池照庵)은 원래 폐찰 흥국사의 열반당이었는데 지금은 봉정사 산내암자로 귀속되면서 지조암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다. 얼마 전에 몇 평 짜리 연못을 철문앞에 조성해 놓았다. 외래종인 부레옥잠 대신 우리 고유의 수생식물들을 심어놓으면 운치도 있고 생황시수를 처리하는 정화지(淨化池)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조암을 지나면 반가운 흙길이다. 포장 길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흙길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모든 생명들은 본래 비포장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갈라진 발가락부터가 그렇다.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주변 숲은 소나무의 개체가 점점 늘어나면서 활엽수들이 구조조정되고 있다.

얼마 전에 새로 복원한 내원암 주변은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반분하는 혼효림이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곧바로 단순림으로 불려도 좋을 솔숲이 울울창창하게 나타난다. 천등산의 솔숲은 안동지역에서 가장 송이버섯 생산량이 많은 송이버섯이다. 천등산의 송이버섯은 봉정사의 짙 살림을 운택하게 해주는 소중한 재원(財源)이면서 천등산의 생태지표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 뿌리 끝 부분인 세근에 붙어사는 담자균류에 속하는 외생균이다. 이를 그대로 소나무(적송)에서만 자생한다. 처음에는 낙엽 속에서 남근(男根) 모양으로 자라다가 지표에 나오면서 갓을 피운다. 갓은 대개 15cm 안팎이며, 밤갈색을 띤다.

송이가 많이 나는 솔숲일수록 건강한 것은 송이버섯이 소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얻어내는 동시에 땅속의 무기질인, 질소 등을 흡수하여 소나무에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이버섯은 주위의 생태환경이 조금만 상치 않아도 수수년을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영물스러움만으로도 천등산의 지표종이 될 만하지 않은가.

송이 채취는 건물장마가 끝나기 바쁘게 시작된다. 이 무렵이면 송이버섯채취권을 띤 업자들이 눈에 볼을 끼고 산을 지킨다. 업자들이 암갈의 송이를 얻기 위해 이른 봄부터 소나무 아래 진달래와 철쭉 등 관목들을 제거하여 숲을 광활하게 만들었다. 그 바람에 꽃이며, 곤충, 새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천등산은 6백m도 안 되는 작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발 아래로 낙동강 기슭의 야산들과 논밭들이 일망무제로 펼쳐져 있다. 뱀그늘나무 몇 마리가 건물장마에 젖은 날개를 팔러 산꼭대기로 날아들었다. 나비라고 해서 모두 짙을 빠는 것은 아니다.

뱀그늘나무도 꿀보다 나무의 진을 좋아한다. 정상 부근에서 이 나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소나무 단순림이 끝나고 혼효림이 시작된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뱀그늘나무도 천등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내년 여름에나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정상 아래쪽에 전설의 천등굴이 있다. 의상대사의 10대 제자중 한 사람인 농인대사가 이곳에서 옥황상제가 내린 등불을 꺼고 수도했다고 한다. 천등산이라는 지명도 거기서 연유한다. 그러나, 지금은 안동지역의 무당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환경이 피폐해지고 산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정상에서 개목사로 내려가는 길은 참나무류 중심이던 활엽수들이 화염의 수해(水害)를 이루고 있다. 천등산은 전형적인 육산인 까닭에 식생들이 모두 깨끗하고 건강하다. 그러나, 햇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천등산 봉정사, 이호산화(88×137cm), 1999년작.

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주었다. 그늘 속에서 민달팽이 한쌍이 짝짓기에 여념이 없다. 한쌍에 입수 생식기를 갖춘 자웅동체이지만, 좋은 종족을 보전키 위해 다른 녀석들을 찾아서 짝짓기를 한다.

길섶 · 산자락에 형형색색 풀·나무 서식 영산암, 산비탈 활용 '생태건축' 좋은 예 15센티 민달팽이...대기·토양오염 민감 흰개미 창궐 사찰기둥 값어 골칫거리로



◇민달팽이는 대기·토양오염에 매우 민감한 생물이다.



◇흰개미 피해가 심한 민세루 기둥.



◇천등산의 생태 지표종 송이버섯.

너무 울창해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가하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 나무들이 부딪스런 아랫 가지와 잎들을 제 스스로 퇴출시키고 있다. 건물장마로 해서 땅이 축축해지자 달팽이류들이 제 세상 만만 못 여기지기 나와서 살린다. 민달팽이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남부지방에 사는 것일수록 덩치가 큰 편이다. 이번엔 천등산에서 관찰된 것은 유난히 커서 15cm를 웃도는 '뿔'이다. 민달팽이는 살갓이 연체로 되어 있어서 특히 대기와 토양 오염에 매우 민감하다. 지나간 건물장마는 달팽이류들에

숲을 20여년 벗어나면 개목사(開目寺)를 만난다. 개목사라는 인상적인 이름은 조선 조 명제상이었던 고종 명제상이 안동부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논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비보(裨補)하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한때는 전담까지 우뚝했던 99칸 대찰이었으나, 지금은 가을밭에 단청이 바랜 퇴사(退舍)에 불과하다. 돌담장엔 붉은강낭콩 덩굴이 올라와 요염스러운 진홍빛 꽃을 피우고 있다.

개목사 뒷밭은 예전에 시키면 장막을 치고 인삼을 심었으나, 지금은 도라지꽃이 만

발이다. 봄이면 개목사 주변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다. 농인대사가 그걸보고는 '꽃의 언덕'이란 뜻으로 '화연(花巖)'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절 아래 화원(花園) 마을이 바로 그 전설의 흔적이다. 개목사에서 영산암 가는 오솔길은 인적이 드물어 호젓하다. 숲은 여전히 소나무가 섞인 혼효림의 연속이다. 길섶과 양지 바른 풀밭에선 가을 풀벌레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다. 흔하디 흔한 소리라고 하면, 벌날의 빠꾸기 소리, 여름날의 매미 소리, 가을날의 귀뚜라미를 떠올린다. 풀벌레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온다. 하지만, '풀벌레 울음소리'라고 했을 때 심증(心證)같은 가을을 영상한다. 거기에는 자연과학의 법칙이 숨어있다. 여름은 기온이 높아 소리가 위로 상승하지만, 일교차가 심한 가을은 공기 이동이 지면 위로 흐르기 때문에 풀벌레소리가 더욱 맑고 뚜렷이 들린다.

영산암은 봉정사의 산내암자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비롯 몇 편의 불교영화의 무대로 나온 적이 있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나, 보수공사 시작되면서 발걸음이 더욱 끊겼다. 영산암은 영주-안동-예천을 잇는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인 모자형 양반가옥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자 공간에 막돌 석축을 놓아 입체적으로 이분화한 것은 산비탈의 경사를 활용한 생태건축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절제의 미학'으로 설명되는 우리 절집의 사철조영이다. 마당 한편에 만지송(萬枝松)이 잘 자라 있다. 무수히 많은 가지가 부챗살처럼 펼쳐지는 만지송은 소나무의 한 변종으로, 반송(forma multicaulis)과 같이 유전적 형질의 소산이다. 그러나, 지표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지는 일반 반송과는 달리 지상에서 1m 이상 자란 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만지송의 특징이다.

수백년된 두 그루의 갈참나무가 지킴이로서 있는 돌계단을 내려서면 바로 봉정사 큰 절이다. 1972년 극락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량문에 따르면 의상대사의 제자인 농인대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천등산을 한 마리 봉황으로 보았을 때, 봉정사는 봉황의 몸통이요, 아까 지나온 지조암은 오른쪽 날개요, 개목사는 왼쪽 날개에 비견된다. 절묘한 포석(布石)이다. 이것은 옛 스님들의 자연을 읽어내는 능력이 수습함을 보여준다.

봉정사의 동선은 가파른 돌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앞면 5칸의 형결한 만세루가 느티나무 기둥 위에 올라앉아 있다. 만세루 우람한 기둥들이 흰개미의 공격을 받아 내용을 잃고 있어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바늘구멍만한 흰개미 구멍들이 기둥마다 무수히 뚫려 있고, 이미 몇 개의 기둥은 흩날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다.

자연생태계 속의 흰개미는 숲속의 작은 나무들을 말끔히 분해해주는 청소부지만, 공들여 지은 건축물들까지 무차별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해충이다. 땅속에서 태어나 성충이 되면서 곧바로 목재들을 공격해 일생을 나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흰개미의 공격을 받은 기둥은 내부가 텅 비게 되어 지붕의 하중을 지탱할 수 없어 휘어지거나 내려앉게 된다. 흰개미의 수명은 1년 남짓하지만, 수십만 마리로 이루어진 집단 수명은 평균 30년을 간다고 한다. 현재로는 연막방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지만, 방제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 더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옛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기둥 아래에 숯과 소금을 넣어서 방제했다고 하나, 요즘은 그 지혜도 잘 쓰지 않는다.

봉정사에도 오랜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다. 고급당 뒤쪽 기슭에 있는 두 그루 은행나무는 수관이 그리 장대하지는 않으나, 연륜은 매우 깊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뚜렷한 부부수(夫婦樹)이다. 이 부부수가 독신의 수행자들이 사는 절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신라 스님들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약목(藥木)으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절집에서 보는 대부분의 은행나무들이 암나무라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관아에 은행암을 공중하기 위해 암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한국대의료원 신약 5개 약 1만명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박물관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인적용 차량인서비스(카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부 오일뱅크 리타워 30원 적립
- 불교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가문의
입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